

장수군 예산안 3000억 돌파

군, 올해보다 8.7% 240억 증가한 3010억원 편성... 현안사업 지원 중점

장수군이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2,770억원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3,01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21일 장수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3,000억원 이상의 예산규모는 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 국가예산의 지속적 발굴과 교부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둔 성과로 보고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54억원이 증가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5억원이 감소한 31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억원(2.6%), 세외수입 88억원(3.3%), 지방교부세 1,357억원(50.3%), 조정교부금 20억원(0.8%), 보조금 922억원(3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7억원(8.8%)

등으로 2,7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8억원, 의료보조특별회계 2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47억원으로, 총 4개 특별회계에 31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내년 기금운영 규모는 68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29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2억원 △마을회관 및 모정지인 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 62억원 △6차산업지구조성 9억원 △일반·시설원예지원사업 16억원 △장수한우 TMR활성화사업 5억원 △남덕유산 관광개발 및 치유의 숲 조성 16억원 △습담불랑농지 개선 11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39억원 △농촌중심지 확

성화사업 50억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21억원 △재해위험개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 12억원 △장수·장계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 52억원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55억원 등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중심의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실현, 6차 융복합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장수가야 유적정비 등 군정 시책을 가시화하여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특히,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현안적인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20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수=고판호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행복매니페스토상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서

진안군 이항로 군수는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조직위원회와 시사연합신문사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수가 수상한 행복매니페스토상은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헌도가 높은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항로 군수는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와 진안음소재지 순환택시(100원 행복택시) 운영,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

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탄소발열의자 설치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115개소 클린하우스 설치와 주민 주도의 쓰레기 3NO 운동, 친환경 우렁이 농법 확대(1,640ha), 친환경 제설제 전면사용, 농기계 폐오일 교환 등 청정환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특히 군민의 염원이던 도시가스를 내년 10월 공급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져 받는 상이라 무엇보다 의미 있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진안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청정환경 지키기 등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신농영농조합법인,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장수군의 신농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7년도 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되어 22일 초고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은 장수사과를 재배하는 청년들이 생산과 유통에서 혁신을 하고자 모여 만든 생산자 단체로 친환경 병해충방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적용, 국내육성 신품종 시범배배, 해외시장 수출 등 우수한 성과가 인정되어 최고품질 생산단지로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23일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진안홍삼 고추장 대추제를 문체체육관에서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근주 부군수, 박명석 군의장과 의원, 윤석정 재전주향우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진안군 114물결봉사단 오복덕(여, 52)씨 등 유공자 26명에 대한 시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관내 30여 개의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지역 특산품인 홍삼가루를 사용하여 '진안홍삼고추장대추제'를 진행, 550 가구의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대중교통계획 용역 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2일 지방대중교통 5개년 계획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번 용역보고회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운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안과 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총망라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호평

무주군이 대한영양사회 전북지부에 위탁·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린이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관내 17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총 37회(1,543명 대상)에 걸친 순회방문과 대상별 교육, 요리교실을 진행해 식단개발을 지원하고 영양과 위생 교육을 주도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딧불이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 '성황'

'2017 반딧불이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가 23일 무주군청 차 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 등 500여 명이 나눔과 기부에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주민 이 모(44, 적상면)씨는 "오늘 동료들이랑 이곳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며 "날도 추운데 시간과 노력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뜨끈뜨끈한 국물민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나눔마당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했다는 김 모(68, 무주읍)씨는 "미리 구입했던 티켓으로 먹고 들기름을 샀다"며 "물건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해마다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주지역자활센터와 무주종합복지관, 무주평화요양원,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하은의 집, 무주반딧불이니어클럽, 무주0087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으며, 나눔마당에서는 천마와 와인, 쌀, 떡, 들기름 등 기부물품 판매와 식사, 분식, 차가 준비돼 손님들을 반겼다. 감동마당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웃돕기 성금과 구매티켓 기부, 자원봉사, 티켓구매 등으로 함께했다.

또 관내 청소년들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문화마당에서는 노래와 악기연주, 시회작품전시회 등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이날 사랑나눔 먹거리장터를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군은 이 행사를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운장산 자연휴양림으로 힐링 여행을

원시림이 숲속의 집·야영데크 감싸고 있어... 전주서 1시간 거리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숲속의 태곳적 평온함을 오롯이 간직한 진안군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에서 '진안 고원여행'으로 지친 이들의 힐링 공간으로 여행객을 초대하고 있다.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자연의 비경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원시림이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를 감싸고 있어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전북의 지붕이라 불리는 운장(雲長)산(1,126m) 자락, 갈겨계곡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전주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힐링 여행을 위해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숙박시설로 숲속의 집 11동, 연립동 1동(2실), 산림문화휴양관 1동(12실), 숲속수련장 1동(2실)이 있고, 야영시설로 야영데크 1개소(20면)가 마련되어 있다. 취사장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자연의 비경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원시림이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를 감싸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운장산 자연휴양림에서는 갈겨계곡 내 제방비위, 마당비위 및 이끼쪽포를 둘러보면서 음이온 샤워를 즐기는 계곡 트레킹 및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나무목걸이 만들기, 천연홍삼비누 만들기 등)을 즐기며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 좋다.

특히 운장산 자연휴양림은 주변 9봉 능선에 놓인 구름다리도 유명한 구름산과 사철 다양한 매력으로 사철 찻길 좋은 메타세쿼이아 길, 기암괴석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운일암 반일암, 진안 대표 관광지 마이산 등 진안 고원여행으로 지친 이

들의 힐링 캠프로 최적의 공간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진안 고원여행으로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고요한 원시림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최적의 공간"이라며 "지친 이들이 마음과 몸이 쉬어갈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